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만민에게 이 복음을! - 50일간의 기도와 전도운동

'94 비전2000운동

우리교회는 1991년 교회 창립에 앞서 7주간의 특별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고, 50일째 되는 11월 24일에 교회창립예배를 드렸다. 그 후에도 해마다 교회 창립일 50일 전이 되면 '비전 2000운동'을 선포하고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도 다음 주일(10월 2일) 찬양예배 시에 발대식을 갖고 50일간의 전도와 기도운동의 행진을 시작한다.

「비전 2000운동」이란 21세기가 되기 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종족이 많이 있다고 하며, 우리 주위에도 구원의 소식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한 이웃이 많이 있다. 개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음을 뿌리는 것이 비전 2000운동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여러모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며 아울러 그 일을 능력과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 기도예배하는 기간이다.

▶ '94 비전 2000운동의 목적

- 전교인이 기도와 전도를 생활화하기 위해
-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전도의 열매로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 전도대상자(태신자)를 향한 적극적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
 -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한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 표어 - “만민에게 이 복음을!”

▶ 주재성구 및 찬송

- 주재성구 /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

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주구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서 1장 3절)

- 주재찬송 / 찬송가 260장(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 주요행사 일정

- 10월 2일 - 비전 2000운동 발대식, 태신자 카드 제출
- 10월 9일 - 전교인 개인전도, 노방전도, 축호전도
- 10월 16일 - 전교구 가족 만남의 주일
- 10월 23일 - 전교인 개인전도, 노방전도, 축호전도
- 10월 30일 - 전가족 만남의 주일
- 11월 6일 - 친구 초청 주일
- 11월 13일 - 이웃 초청 주일
- 11월 20일 - 총동원 주일, 송전감사예배



▶ '94 비전 2000운동 조직

운동본부장 / 이종윤 목사

진행위원장 / 홍정호 장로

지도교역자 / 김재호 목사

부서명	부장	교역자	세부조직	간사	실행위원
진행부	홍정호	김재호	총무	서문석	서준식(행정) 박춘구(회계) 김정희(동원)
			진행	황정옥	최형열 이상호 김연옥 구명덕
			홍보	이영기	정동호 유명석 김찬진
			통계	조정식	장양일 최일춘 홍종표 박정인
			발송	고석창	김양숙 김선희 김숙자 김향자 김명자 이은희 허정자 진선자 한춘홍 이영선 유영자 김경아 위신옥 이관모 남태순
전도부	오정수	임진태	봉사	양숙란	김순자 한명순 정봉금
			축호전도	박두호	이은희 이영희 최종시 임광식
			원필현	왕경래	한정아 김명심 김광신 나희주
			장유취	권영복	이남성 최재규 윤봉준 노문환
			개인전도	이관규	황정남 박우옥 정병무 김태기
교육부	김광신	원필현	교회학교	부감	김일용 김병용 이영세 이영열
			1-12교구	교구장	권윤경 김숙자 유윤진 이남호
			다락방장		
기도부	김일용	유순화	남선교회	회장	전교회 임원
			여전도회	회장	전도회 임원
			권사회	임원	권사 전원

• 태신자 카드의 활용 •

▶ 태신자란?

어머니의 배속에 있는 어린 생명을 태아라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에 품으면 그가 곧 태신자입니다.

▶ 나의 태신자를 위해서 해야 할 일

1. 매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2. 전화, 편지로 혹은 기회를 만들어 직접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줍니다.
3. 태신자와 친구가 되며 그의 필요를 채우며 그를 돕습니다.
4. 시간으로, 물질로, 몸으로 태신자의 영적인 출생과 성장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합니다.

• 태신자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여러 성도가 여러분의 태신자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강해



살렘인가, 소돔인가?

(14장 17절 ~ 24절)

이 중 윤 목사

살렘(Shalem)과 소돔(Sodom)은 그 이름이 아주 비슷하지만 이 둘은 매우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명사라면 어둠과 부패의 상징입니다.

살렘은 모든 좋은 것을 기원하는 유대인의 인사말인 '샬롬'으로부터 온 것으로 '예루살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레'와 '샬롬'의 합성어로 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화의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새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즉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요14장)입니다. 이와 같이 살렘은 천국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반면, 소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소돔인을 뜻하는 영어의 소도마이트(Sodomite)는 '남색하는 자' 곧 동성연애자, 성적인 죄의 극악자를 뜻하는 말로서 소돔이 어떠한 도시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이 살렘 왕과 소돔 왕이란 평강의 천국과 이 세상의 악한 것의 극단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살렘과 소돔은 둘 다 사해 근처에 위치한 도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영접하였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19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그에게 십일조를 바칩니다.

소돔 왕 베라도 역시 아브람을 영접하지만 사람만 보내주고 물품은 취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에 대해 아브람은 아무 것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23절).

본문에 나타난 아브람

의 신앙 인격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 하나님께만 영광돌린 아브람

소돔 왕의 제안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훌륭한 협상 같으나 아브람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전리품을 다 갖게 된다면 단번에 큰 부자가 될 것이지만 아브람은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신자가 불신자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가치관의 차이일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제 뒤편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생활태도입니다. 아브람이 승전한 것은 자신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으려고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누리는 영적인 번영을 의미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승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만 믿고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 온전한 헌신을 한 아브람

'한 실이나 신들메라도 취하지 않겠노라'고 한 아브람의 맹세는 그의 철저한 헌신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전심을 다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토해 내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전적인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하나님만 믿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

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서 온전한 새사람으로 변화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며 복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각자가 선 자리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하나님 편전에서' 일해야 합니다. 무디(D. L. Moody) 선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온전히 헌신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루 하루의 순간에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신앙인 되어야 하겠습니다.

3. 하나님과 교제한 아브람

십일조를 바친 아브람에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대접합니다(18절). 떡과 포도주는 성찬식 때마다 사용하는 것으로, 떡은 생명의 상징이며(요6:50)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시104:15)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함으로 생명을 얻은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로 인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아브람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린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의 충만한 기쁨을 풍성히 누리면서 절대적인 헌신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복으로 띄우는 편지

지척이 천리라던가.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멀리 갈리놓았던가. 풍요로우면 무엇이며 행복해도 기쁨이 없는 것은 잃어버린 반쪽 까닭이리라. 아내를 남편에게서, 아들을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간 자가 누구며 그토록 긴 세월동안 한숨과 좌절 속에 빠지게 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이데올로기의 허수아비도, 이기적인 탐욕의 피꺼기도 이제는 훌러가는 강물의 물거품처럼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가.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고 브카레스트의 레닌 동상도 밧줄에 목이 매여 끌리어 내려진 지금, 그대는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얻겠다는 것인가.

두껍게 펼쳐진 빙벽 속에 갇혀 당장 돌리지 않는다고 좌절치 말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던 우리 주님의 약속 믿고 진리의 밝은 햇빛이 비치는 한 언젠가는 녹아 무너질 날이 올 것을 믿고 우리 함께 쉬지 말고 기도 하자.



목회자세미나 현장 스케치

9월 12일(월) 제2교시 강의 요약

파스칼과 그의 저서 『팡세』

강사 / 이 환 박사 (서울대)

1. 파스칼

그는 17세기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천재적인 과학자였다. 그의 과학적 태도는 이론보다는 실험적 과학을 중시했고 본질적인 것의 추구에 관심을 두었다. 그는 일생을 통해 과학을 연구했으나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세계가 있음을 알았기에 과학에 매몰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뛰어난 인간학자(moralist)로 결국 인간의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을 탐구하고, 과학에서 본질을 규명하듯 인간을 움직이는 기본적 원리를 탐구하려 했다.

파스칼이 인간학에서 연구한 인간이 오직 인간 뿐일 인간이라면 신앙인으로서 규명한 인간은 인간 외적인, 초월자로부터 해답을 유추해 낼 수 있는 인간이다.

그의 저서 『팡세』에는 실험정신이 강한 과학자로서, 현실적인 모랄리스트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인간과 그 본질에 대한 파스칼의 관점이 서로 유기성을 가지고 묘사되어 있다.

2. 파스칼이 살던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정황

파스칼은 1623년에 태어나 1662년에 사망했다. 그가 살던 서구의 17세기는 1000년간 중세를 지탱해오던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그에 대신할 만한 이념이 없이 혼란의 와중에 헤매이다 근대적 사고의 틀이 조금씩 형성되던 시기이다. 에라스무스, 칼빈, 루터 등의 등장과 근대적 사고의

한 획을 그은 데카르트의 출현은 교회에 함몰되었던 개인의 주체성과 이성을 중시하여 '하나님 앞에선 개인', '신앙적 주체자로서의 나'에 대한 의식을 계몽함으로써 근대로의 진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파스칼의 『팡세』에 나타난 기독교적인 시각은 근대(modernity)를 역행하는 것으로, 최초의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 할 수 있다.

3. 파스칼의 『팡세』

『팡세』의 체제는 1000개의 단편으로 되어

있지만 설득을 위해 자기 주장을 편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유추한 각각의 단편은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읽어야 한다.

『팡세』의 내용은 크게 2분된다. 제 I부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을 설명한다. 비참한 인간이란 실존적 인간이요, 과학과 인간학에서 발견되는 오직 인간일 뿐인, 한계 상황에 처한 인간이며, 공허하고 헛된 근대적 의미의 인간이다. 반면, 제 II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 서술한다.

『팡세』의 놀라운 특징은 인간과 신에 대한 고찰이 각기 분리된 두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구되는 대신 하나의 유기적 전체를 이루고 있는 점에 있다. 파스칼의 인간학은 그 자체로서 흥미롭고, 그의 신학 또한 성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서 흥미롭다. 그러나 『팡세』의 진정한 흥미는 이 양자를 어떤 필연적 유대로써 하나를 묶었다는 데에 있다.

그는 '人間曲'과 '神曲'을 함께 쓰기를 원했던 것이다.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을 처음 뵈 후 40여년 만에야 이같은 글을 올리게 된 게으름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교 신자인 부모님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고등부 회장으로, 대학교 시절에는 기독교학생회 부회장으로,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제법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왔노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세상 열락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아내(조은영 집사)의 끈질긴 기도과 권유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집사 직분까지 맡겨주셨는데 저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고,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 아이 수준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제 삶의 목표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었으며 پول의 이슬과 같이 사라질 이 세상의 명예와 출세에 집착하여 교회봉사는 시간낭비로 생각했고, 성경을 읽고는 대신 세상 지식을 익히는 일에만 열중하였습니다. 겨우 한 번 통독한 신·구약 성경도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마지 못해 책상 앞에 앉았하여 겨우 읽은 정도입니다. 세상 감투는 즐거웠면서도 부담없이 신앙생활을 하고픈 마음에 직분반기를 꺼려하였습니다. 제 삶에는 불평과 불만 뿐이었습니다. 왜 딸은 셋째이나 주시면서 원하던 아들은 하나도 주시지 않았는지, 왜 신체 일부를 앓아가심으로 평생 불편하게 살게 하시는지, 왜 남들보다 더 빨리 출세하도록 도와 주시지 않는지 등등.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질없는 욕심에 차서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마치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드심 같이 어리석기만 했던 저에게 매를 드사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지난 5월 초, 농안법(農安法)파동으로 농산물 유통국장의 자리에서 해직되면서 온갖 마스크들이 복지부동 공무원의 표상인양, 거액의 로비 자금을

신앙간증문

하나님 전 상서



신 순 우 집사 (중등부 교사)

명예도, 자리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간 어두웠던 제 눈을 밝히사

명예와 출세의 우상, 나 자신의 우상을 섬기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새 열망을 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부정 공무원으로 저를 매도할 때의 고통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섰습니다. 결백을 부르짖어도 해명할 길은 없었고 인생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달아서야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국회답변 과정에서 야당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드린 기도는 예수 믿은 후 그 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5~6분 간의 답변과정 중에 잠겼던 목과 굳었던 허가 풀려 재개정되어야 할 농안법에 관해 제 소신을 굽힘없이 말할 수 있었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임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놀라움 속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동안은 무고하게 희생양이 된듯한 억울함과 불명예스러움에 대한 분노로 화병에 시달렸으나 이제 다시금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예도, 자리도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간 어두웠던 제 눈을 밝히사 명예와 출세의 우상, 나 자신의 우상을 섬기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새로운 열망을 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꿀보다 달게 여겨지고, 찬송 속에서도 기도 중에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기쁨으로 뒤흔게나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부지런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사 계속하여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지난 번 사건으로 아내는 큰 충격을 받고 시련 중에 있지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신 순 우 올림

■ 달방 - 8교구 상계다락방

열심은 거리가 반비례?

더운 여름동안 방학을 했던 다락방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모범적이라고 소문난 상계다락방을 찾았다. 예배 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주 메뉴인 회덮밥에 각 가정에서 한접시씩 준비해 온 고구마 튀김이며 고추절임 등으로 푸짐하게 차린 음식과 함께 주님께서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나누면서 친교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교회까지 오려면 전철과 버스를 두 세번 같이 타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는 동네인데, 그 먼 곳에 사시는 다락방 식구 대부분이 교회의 곳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익히 보던 얼굴들이었다. 모이기에 힘쓰는 일, 적극적인 봉사활동,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교회와의 거리와는 반비례하는 것인지. 눈이나 비가 오면 온 가족이 서둘러 오려 더 일찍 교회에도 도착하고, 흥해작전과 같은 교회행사에는 이웃의 성도까지 독려해서 참여하는 특이한 열심을 가진 다락방. 그래서인지 서로를 자



랑스럽게 여기며 다락방 식구들끼리 마음을 모으는 일은 참 쉬운데,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 전도한 이웃을 교회에까지 데려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상계다락방식구들은 이번 「비전 2000운동」 기간을 새로운 도약과 부흥의 계기로 삼으리라고 다짐한다.

■ 우리부서의 비전2000운동은 이렇게 - 유년부

골목 전도, 정오 기도, 잃은 양 찾기 운동

국민학교 1, 2, 3학년생들을 위한 교회학교 유년부.

이번 「비전2000운동」을 위한 세부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벌써 마음을 모아 기도를 시작하였다. <글없는 책>과 같은 전도 책자를 이용한 골목전도 뿐 아니라 개인전도와 엽서 보내기 등을 통해 주변에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이 교회에 발을 들여 놓게 될 친구들이 흥미롭게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 교재를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번 「비전2000운동」 기간 중에 유년부는 선생님과 학생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정오가 되면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가라도 한마음으로 교회와 유년부,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장기 결석자나 출석율이 낮은 어린이를 찾아 전체 심방도하기로 했다.

유년부의 기도제목은 ① 우리 교회의 성장, 부흥과 예배당 건축하는 일, ② 전체 출석인원이 배가 되는 일, ③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는 일이다.

유년부의 주일 집회는 오전 9시 3층의 유년부실에서 가진다.



교회학교 교사와 교사 지원자를 위한 특강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실제”

강사: 송재천 교수(장신대)
9월 29일(목) 오후 7시

“교회 교육 이대로 좋은가?”

강사: 오인택 교수(연세대)
9월 30일(금) 오후 7시

교회학교 교사 체육대회

“더욱 힘써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올해도 교사체육대회를 10월 3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북구민체육관에서 가진다. 우리 교회의 11개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친목을 도모하게 될 이 행사는 ‘더욱 힘써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벧후 1:10)’는 주제 아래 거행된다. 이 행사를 위해 각 교회학교의 부감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최종 점검을위한 준비위원 모임을 오늘 III부 예배 후 4층 부속실에서 가지기로 했다.

소망부 신앙특강

노년기의 신앙과 가정

(자녀, 고부, 손자 관계를 중심으로)

강사: 심상권 목사

9월 25일(주일) 오후 2시 30분 - 3시 30분, 소망부실(3층)에서

교우동정

· 허희철 집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가 단장으로 있는 한국 로얄 오페라단이 제 3회 정기공연을 갖는다. 오는 10월 13일(목)부터 나흘간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에 올려질 이번 작품은 도니체티의 3막 오페라 「루치아」이다. (문의/ 허희철·이연숙 집사 ☎ 544-1534, 오페라단 사무국 ☎ 558-4682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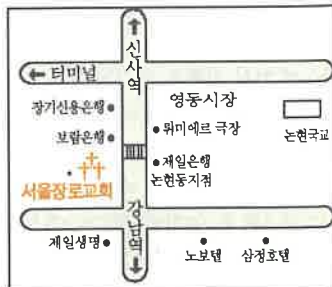
이중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비전2000운동이 알차게 결실하도록
2. 태신자를 위하여
3. 제6학기 목회자세미나가 한국교회갱신에 기여하도록
4. 다락방 활동을 통해 성도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